



‘高임금 低생산성’ 기아차 노조 연간 1조원 수익 개선안 거부

기아차가 제시한 경쟁력 향상방안을 노조측이 거부하고 나서 적자탈출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수익개선효과가 연간 1조원대에 달하는 회사측의 경쟁력 향상방안을 무시한 채 고용안정, 임금인상 및 생계지원비 지급만 요구하고 있어 ‘노조가 제 무릎을 파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높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9월 5차 본교섭에서 노조측에 인력전환배치를 포함해 가동률 향상, 판매생산성 향상, 편성효율 및 조립인건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쟁력 향상방안을 제시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 경쟁력 향상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연간 9천70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및 수익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쟁사 수준으로 가동률을 높

회사 적자 불구 임금인상·생계비 지급 타령만

이런 연 12만대를 추가 생산해 이에 따른 이익은 2천8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현재 기아차 가동률은 89%로 현대차 96%, 일본 토요타 98%에 크게 뒤떨어진다.

또 기아차는 국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판매생산성을 높이면 연 2천3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아차의 1인당 월 평균 판매대수는 2.5대로, 르노삼성(5.3대)이나 현대차(3.4대)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노사가 영업직 사원의 판매 생산성 향상과 영업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판매 생산성 및 판매력 향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객의 수요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판

매거점 효율화’를 모색할 경우 올해 1인당 월평균 판매목표인 3.2대 달성, 국내시장 점유율 27%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의 적절한 전환배치와 특근효율 증대 등을 통해 편성효율을 개선할 경우 연 4천6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요타의 편성효율은 93%, 현대차 미국공장과 중국공장은 각각 92%·89%에 달하고 있으나, 기아차는 59%에 불과하다. 노동생산성(완성차 1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총 투입시간) 지수도 토요타 21.3, 혼다 21.4, GM대우 22.7, 포드 23.8, 현대차 32, 기아차 39.5로 기아차의 생산성이 가

장 떨어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차투입 또는 라인 재편성 과정에서 편성효율을 지금보다 5%씩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경우 내년에는 경쟁사 수준(90% 이상)의 편성효율을 달성,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사측은 합의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측의 전향적인 제사가 없다면 8월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11일 동안 부분파업을 벌여 생산차질대수 1만8천900여대, 손실액 2천77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동안 광주공장은 생산차질대수 6천300여대, 손실액 980억원을 보였 다. 330여개의 광주·전남지역 협력업체 손실도 23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검은멜론’ 맛보세요 18일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검은 멜론’이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농협이 2007년도 농업인 신소득 작목으로 지정한 ‘검은 멜론’은 일반 멜론 보다 당도가 평균 2.3도 가량 높다. /연합뉴스

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비전 제시 국제 문화·콘텐츠전 9월 13일 개막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국제 문화·콘텐츠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김대중컨벤션센터는 18일 “국제문화창의산업전(ACE Fair, Gwangju Arts Contents & Entertainment Industry Fair 2007)을 오는 9월13일부터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조와 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산업전은 지난 해 첫 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참가 신청업체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 마련 등에 힘입어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

미국 트로마 엔터테인먼트와 인도, 일본, 중국 등 해외의 13개국 45개 업체가 이미 참가 신청을 했으며 국내 업체도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113개 업체가 신청을 마쳤다.

특히 미국의 독립영화제작업체와 예술대학교, 영화배급사 등 미국에서 만 10여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산업전에는 방송과 영상 콘텐츠,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UCC 콘텐츠 등 다양한 전시관과 국제문화 거버넌스, 국제미디어 포럼 등 학술행사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UCC 콘테스트와 스타 오디션 선발대회, 우수상품 유희공방 방송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산업전에 참가한 국내외 방송,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제작 업체 등은 수출입 상담과 판매 등도 모색하게 된다. /채희중기자 chae@

금속노조 부분 파업

국내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산별교섭 경쟁을 위한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사업장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광양 포스코 협력업체인 EG 테크 노조원들도 18일 부분파업에 합세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원 6천 300여 명과 EG 테크 노조원 23명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파업했다. 이들은 20일까지 매일 4시간 파업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등은 부분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민기기자 emlee@kwangju.co.kr

‘100% 한우 판매점’ 늘린다

한우업계, 10월까지 전국 50곳에 인증 부여

수입 쇠고기의 공세가 거세짐에 따라 철저한 차별화를 통해 살아남으려는 국내 한우업계의 자구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적용 음식점의 면적 기준을 ‘300㎡(90평)이상’에서 ‘100㎡(30평)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늘린데 이어, 전국한우협회는 자체 한우판매 인증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한우협회는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음식점들로부터 ‘한우판매점 인증’ 추천 및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회의는 2개월 넘게 서류 및 현장조사를 벌여 한우 공급 경로와 질, 식당 위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상반기 ‘2007년 1차’ 인증과정에서는 애초 100여곳이 관심을 보였으나 38개 업소만 실제로 추천을 받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4개가 인증을 받았다.

여기에 작년 처음 인증된 12곳까지, 현재 영업 중인 한우판매점 인증업소는 모두 36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개 ▲인천·경기 6개 ▲강원 2개 ▲충북 1개 ▲전남 5개 ▲전북 1개 ▲충남 3개 ▲경북 5개 ▲경남 9개 등이다.

/연합뉴스

아시아나 항공 세계 ‘톱 10’

트래블 앤 레저 선정

아시아나항공이 세계적인 여행전문지 ‘트래블 앤 레저’가 선정한 2007년도 세계 최고 국제선 항공사 ‘톱 10’에 뽑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는 ‘트래블 앤 레저’가 최근 전 세계 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선 운영 항공사 톱10 조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위를 차지하면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싱가포르항공이 총점 88.2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제트에어웨이즈(86.67점, 인도), 에미리트항공(82.68점,

UAE), 캐세이퍼시픽항공(79.26점, 홍콩), 타이항공(79.24점, 태국)이 5위권을 형성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74.44점으로 JAL(75.77점, 일본)과 실크에어(74.97점, 싱가포르)에 이어 10위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트래블 앤 레저’가 세계적인 조사기관 ‘해리스 인터랙티브’와 함께 국제선의 승객 편안함, 음식, 기내 서비스, 고객 서비스, 브랜드 가치 등의 분야에 걸쳐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인천~LA에 주 12회, 샌프란시스코·뉴욕·시애틀에 주 4회, 시카고에 주 3회 등 미국에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

양파값 폭락

1kg당 300원대...작년 절반

양파값이 폭 떨어져 재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8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1kg당 양파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인 300원대로 하락했다. 5년 평균가격(500원대)에 비해서도 40%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양파가격 폭락은 재배면적이 지난 해에 비해 16.0%, 생산량은 36.3% 각각 늘어나는 등 과잉생산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양파생산 및 재배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남지역은 재배면적이 8천571ha에서 9천730ha로 13.5% 늘었고, 생산량도 479t에서 679t으로 41.7% 증가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